

■ 자료해설

金祐鎭의 <두데기 시인의 幻滅>  
柳仁卓의 <料理 ㅅ 집의 밤>과 '넌센스 小曲' 1편

양승국\*

<두데기 시인의 환멸>과 <요리ㅅ집의 밤>은 『學潮』 창간호(1926.6)에 발표된 희곡이고 '넌센스 소곡'은 유인탁의 유고로서 그의 사후에 소개된 작품이다. 『학조』 창간호는 다른 일부의 창간호 잡지들과 함께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그러나 다른 창간호들은 비록 제한적으로나마 열람이 가능하였지만, 이 잡지는 그 좌익 사상적인 색채 때문에 오랫동안 금서로 묶여 있어서 열람이 불가능하였다. 이후 이 데올로기의 족쇄가 풀린 후에도 창간 잡지에 대한 보존 조치로 창간호 전반에 대한 직접 열람이 금지되어 한동안 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러던 것이 최근 잡지 창간호에 대한 전반적인 마이크로필름화 작업이 완성되어 이제 『학조』 창간호의 전모를 살펴볼 수 있게 된 것이다.

김우진의 <두데기 시인의 환멸>은 그의 생애 중 지상(誌上)에 발표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따라서 그의 이 작품을 언급할 때는 우선적으로 이 판본이 정본으로 취급되어야 하므로 여기에 영

---

\* 울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인하여 신는 바이다. 그의 유일한 발표 작품이 본문에서는 저자가 '산 김수'로 오석이 된 채로 실려 있는 점이 이채를 띠는데, 이렇듯 그는 자신의 필명을 의식적으로 '김수산'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전집의 유고본과 비교하였을 때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으며 편집 과정에서 보이는 사소한 맞춤법과 표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아무튼 이 작품의 소개로 김우진 희곡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전개될 것을 기대한다.

유인택의 희곡은 그 내용이 처음으로 소개되는 것이어서 주목을 요한다. 그의 친구 翠園生에 의하자면(「故 柳仁卓君을 다시 追慕함」, 『매일신보』, 1931.6.30~7.11) 유인택은 수학자이자 목사인 柳一宣의 장남으로 태어나 京城第一高等普通學校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14년 京都第三高等學校에 진학하였다. 그는 그 이듬해 고등학교 2학년의 어느 가을 인생에 회의를 느껴 학교를 그만두고 일본 북해도를 방황하다가 1년이 채 못되어 폐결핵을 얻은 채 귀국한다. 이후 그는 신극운동에 투신하여 <콩이 삶어질 때까지>, <날개 뚫친 구두> 등의 아동극을 연출하는데, 이 중 1927년 12월 경성보육학교의 여학생들에 의하여 공연된 <날개 뚫친 구두>는 당시 문사들로부터 극찬을 받을 만큼 대성공을 거두었다.(金東煥, 「稀有의 名演劇을 多數 民衆아 보아라」, 『조선일보』, 1927.12.16. 沈熏, 「京城保育學校의 兒童劇 公演을 보고」, 『조선일보』, 1927.12.17~18 참조) 안타깝게도 그는 1929년 2월 26일 지병으로 사망하고 만다.

<요릿집의 밤>은 서울의 어느 요리집의 가을 밤을 배경으로 총독부의 신문 검열 행태를 요리집 직원들의 시선을 통해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는 두드러진 갈등과 사건은 드러나지 않지만 총독부의 언론 탄압과 당시 부일 언론의 부화적 행위에 대한 비판이 거의 직설적인 표현으로 표출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즉, 1920년대 후반 카프

활동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지식인의 시각에서 현실 비판의 목적 의식을 뚜렷하게 보여 주는 드문 희곡인 것이다. 이와 함께 <날개 뚫친 구두>가 자못 계급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공연이었음-위의 공연평을 참고하자면-을 고려해 볼 때 작가 유인택의 현실인식을 어느 정도 엿볼 수 있게 해 주는 작품이기도 하다.

함께 소개하는 '년센스 소곡' 1편은 취원생이 위의 추모의 글 중에서 유고로 소개하고 있는 작품이다. 많은 소설, 희곡 중에서 지면 관계로 짧은 이 작품을 소개하고자 한다는 취원생의 언급을 미루어 볼 때, 유인택은 이 작품 말고도 많은 희곡을 유고로 남겼음을 짐작할 수 있으나 이 말고는 단 하나도 전해지지 않아 안타깝다. 이 작품에도 작가의 현실 비판 의식이 우회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를 통하여 1920년대 희극 공연의 대본과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이 작품은 미발표인 만큼 제목도 없어서 매일신보에 소개된 대로 '년센스 소곡'이라고 이름을 붙여 재수록하였다. 가능한 발표 원문 그대로를 轉寫하고자 하였으며, 극히 일부 판독이 모호한 글자는 ○로 표시를 하고 게재 일자를 작품의 중간에 표시하여 두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문맥에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다분히 해설자의 판독 착오일 가능성이 높으니 가능하면 연구자들은 직접 원문을 확인하기 바란다. 아울러 작품 속의 '증략'은 원문 그대로임을 밝혀 둔다.

되고보닛가 이모양이야. 이것도 다 내運命인주르  
로만 알어라! 한번 밟되려노면 해르수업는運  
命의길로만알어!

貞——運命?당신의 卍중피게가 저우 그것이야?덕  
한양반!

(妻方수용어엄터라질듯하다가저우이러나습하나가  
버린다. 눈에도손우태이면서안房으로드러간다.)

元——이러나房안을한번來往하고나서는(퍼타이게 무  
슨演劇이요? 원 영문인자를 묻으깃군)

貞——「우태기詩人의幻滅」이라는演劇이요.詩가 도  
한개생기깃구려.

一九二五、一二

——(幕)——

럼습니다.

妻——(感情의自然한投合으로, 元永의게)天痴가살거든

날 맘대로 맞았거나 나가게해주구려.

貞——그러면 事實인가? 맞갖출도 맘대로 못하

거하는것이.

元——(비우스며)貞子氏도 例에안짜지는군. 천디,엔탈

아리에 同情해서는 그리新奇로운 「新女性」이 못  
되는게야.

貞——(뜻들은치하고妻의게)아니나 그렇게 自由업는

게 事實이니? (손을북자부며) 노리,설을 왜본

맞지안디? 瓊願이도 批上받은女子와 항상갖호

라는法이 어디잇디?

元——흥, 노리,만한資格이나 잇스면 벌서못허 自由

는고만두구라도 라,라,테,라,랜,스,리,도,갈,취,주,었,기,다.

貞——사람머짐에 분수가잇게해요. 世上이元永氏詩것

흔줄아우? 이런홍류현女子가잇기때문에 당신家

庭이되지안엇소? (妻의게)넌가 너무맘이급기는

해도,그렇다구,나것은女子고보면 家庭은 벌서

생여섯을슬것의안디니?

元——家庭이란 監獄이란게 버主義야. 아모리한女子

일지라도 한버는 妻가되면 사람으로서의自由는 업

서지는게야. 女性의永遠한生命은 이곳에잇단말야

妻——(同時에) 저게 主義래요.

貞——(同時에) 원主義야! 그래치 아들나케하구 못

우매주게하구 밤지어주게하구 그리구나서는 自

己는 自稱詩人은 無所不爲로——그게 詩人이요

남一生은 犧牲을맨들어뒀코나서는 自己 혼자만天

堂에서 하누남과것치 노래한다는 두데기詩人?

元——그렇치 나는 詩人야 두데기詩人이라드 조와.

何如問 詩人야. 다만 이런女子로해서는 家庭을

맨든게 저게 不幸이라면 그것이即ち運命야. 왜

사내라면 사내란사내만보면 고안지 영언지 즉

차살자해! 그것도저게 맛당한點은가진사내를

골너버지안쿠 詩중외서 所謂有名하다니야 다르너

들어서 날 볼너번게지. 이것이 그해 情死라도

허지구했슬것가르면 나도 넌,너情死를했슬터이

지. 그러나 이天痴는 그것도실쿠 막 가정을맨

드려야만현머지! 해서 所謂스위트·홀이란게

妻——언니야말로 참 더 귀머짓구려. 그해부다도 더

어엿해지구.(그女的素體모양을檢査한뒤에) 비로소 그  
女와自己새이의對照를認識하고나서는 생각할말하  
거) 비야 이대로 家庭에만..... 인제다사바쳐  
나갈수도업구.

貞——짜커나 가진 왜? 이런 도은家庭에서 쿠엿이  
不是해져 그대드참 (후다분한人事를하고나서는自  
資이된듯이) 애야 참 家庭이란 현실생활과보면  
말처럼 괴롭곳은아니라, 하지만 우리가들女子  
태야 그렇지 너가혼賢淑하구 人情있구 心도한말  
가존대야 그럴게무어야, 공연의 演習場은 말아  
그때도 우리性質은 아주 달력지만저로안켜져오  
직이나 未來를 占척받니, 卒業式날 뒤발場地악

에안켜져 이악이허든生殘나지? 하나는 스이...트  
• 흥, 하나는 世上욕어더먹이生活!

妻——야이구 별소리를 다 언니도.

元——(비로소사류에손을알어채리고) 요더위짓을 하니  
차 욱을안어더먹어? 시침이를 돌쳐이구.....

貞——가만이 잇시오 元永氏는! 이瞬間은 애가당

신夫人이아니구 내넌친구야.(妻의게) 그멋찬녀?

애야 잊지면 結婚披路도 안쿠 고만 숨어쳐.  
그런치만 이럭케맞나긴 아주小說인려.

元——小說류배는 어지간히 배요. 잊지면이런 품상  
한女子차지 다 숨일너구.

妻——(흉져보았스나 卑屈하게)야이구 별소리도 다  
들것네.

元——무어가 별소리야. 天知는 그쳐다수준하고남  
쳐는말이나 웃고안켜져! (貞子) 잊지면 이렇  
게 含蓄속인단말유.

貞——엇지런 이럭케 남말하는데 참전은한단말유. 나  
로해쳐는 엇더케듣지 맞다면 고만야쿠야네  
독부들.

元——(妻의게) 너는 최리로가! 비天殿은 어린애때  
乳하는데 잊쳐!

貞——詩人의天職은 溫良한妻의自由였는데 잊소?  
元——同窓生을만나면 만났지 이게 무슨짓이야. 사  
람을嘲弄을해도 분수가잇지.

貞——卑劣하게 구지마려요. 詩人의 墮落은 참 더

貞——가만이 잇시오 元永氏는! 이瞬間은 애가당



(음계 울러본다)

元——(그誘惑이 못견디는듯이) 오래비 유주어터미기루

이리 찰할게요 (다르너를 어허며 안으려한다.)

貞——(안킨머로가만허서말소리만풀허서) 이진 왜

이래요—精神을 주 차려요 그런法이 어디있다.體

面있구 낫살먹은어른이 이게모슨것이람말유기

괴안켜요 글새 내말중 들어보아요.

元——(타노으며意識업사 소리를亦是痛恨)이진 왜 이

모양이야 도야지 목사는 소리는 왜내!

貞——(길게요집어주며) 이게 詩人유! 어 장한詩

人이구려 참!

元——아야 ~ 正말두 피해먹을테가.

貞——글세 夫人을 볼녀요 夫人을 夫人안개유 (거

는房에서妻가나와머뭇~하다가門을열고들어온다

두사람이떠러커선다 妻와貞子는시로커다본다.)

妻——(진) 언니아유!

貞——(다르너를어손을벗자부며) 예그참난 두구러

~~~~~ 이게 瓊願의아냐? 이게 벗해만일가?

妻——(음계 울러) 반갑기도해! ~~~~~(그때다가自己男便服

해서있는것이 意識되어 普通人事로變한다) 그러면

언제 왔서.

貞——二週日이나 되었다. 현대 (多情한듯이)엇지만

아들까지보쿠——아들낳는게야 그리 神奇로우르것

두 업지만. 이렇게 幸福스럽게살가. (幸福에힘

을들며말한다.) 나것혼게야 所謂放浪生活이지.

(三人의안는다.)

妻——나두 新聞으로는 언니消息도 잘 들어왔지만

엇되면 便紙도 한장업지.

貞——(辯護하듯이)바가 이런有名한詩人의夫人이될줄

이야 엇더케알것넌. (元永을한번커다보구) 夫人

일음이나 일즉이 갈켜주었스면 조출었만. 그때

두 이렇게 뜻밖에 만나는게 더 반갑긴해. 참

부럽다 有名한詩人男便에다가 玉簪子까지낳쿠近

十年이나 되잔었니 우리卒業한뒤가 그해보다두

더 어엇버섯구나! 그러기에 내가 瓊願이든사

침가만하면 運數더질게리구 恒常할허지안들?

그때는 내말이래면 모두 하나우로 듣든모양의

유구면 난 眞情으로 느리게생각했서.

는 그 隣間까지도 다 저 만을 라고 하지 안하오우 海

動이란 것 떠벌이가 나날을 일러다가 제가 차손

에 숙여 너머간 것이지. 숙여 너머가기도 不足해서

自殺까지 해서 贖罪할지 안었소우 그러나 나모아

있는妻子야말로 어매한 苦生과 不幸을 향구잇지만

소우 黃氏나 당신이나 五十步百步지.

元——(뒤 1 도라안즈며 詩人 獨特한 苦生에 소이여) 다시이

化石의게 말해 무엇하리! 아 生魂에能하고 頭

骨에缺乏한 女子여!

貞——(소리쳐우으며) 아하 하하 남 詩人 소리로요.

元——(如前하) 아 나는 아담과 이브를 誘惑한 너한

더러배양을 呪呪하노라! 그 奸惡을 미워하지만

코 내存在를 呪呪하노라 배양과 아담과 이브를한

樂園속에 다 갖허너허둔 저 하느님을 呪呪! 呪

呪하노라!

貞——홍충한걸 相當한걸 내게 데. 데. 케. 트. 해서 題

目부쳐서 發表하슈. 그러면 詩人의 덕에 나도 좀

더世上이야기거리가되게.

元——(다시 地上으로 돌아와서) 부어라고했지? 詩人?

自殺? 妻子? 不幸? 五十步百步?

貞——樂園? 呪呪? 아담? 이브? 배양? 毒蛇?

명령구리? 詩人? 나는 詩人의 아나요 朴貞子애

요 임대것 스심여덜해 이 땅에서사려온 한개女

子애요 當身 苦生으로 生殖器까지 腫터린 頭

腦까지 그리구 詩人의 안것은 良心을 숨겨온 한개

女性애요.

元——나를 무위하거나 할아래에질발버 동명이름치

거나 黃가아니라 더한 男子를 몇몇 名구령여 켜넛

기로 내가 貞子氏 미워할것이 무엇이잇것소. 허

지만 구령되는 一新女性의 말습씨가 泰然하게

고품은 임속에서 나오는것은 참 못견대것은.

貞——(말하리라하며) 내가 잇서서는 안되것구려도

암해엄서야지 詩도쓰구 남도찾구하치.

元——(안근채부처부며) 이모양으로다라나면 내 조롱

을免할줄야우? (이러서며) 그러지말구 더 滋味

있는이와이나허다가구려.

貞——(씩리치며) 고만두어오 家族紹介해주기를바래기

는커녕 잇스면잇습수록 더辱만어더먹을리(대외

으면서 산단말이에요.

元 — 고씨의 常識은 또어대서 작바냈는구.

貞 — 常識常識하니 常識가진게 무슨 羞耻나되는일이유

元 — 당신도 날은 랄손 「新女性」에 不過한단말야

貞 — (담좌하여지다가다시回復되며) 날은하? 新女性?

元 — 그렇치아니면 코쿠에스트리에 不過한단말야.

貞 — 흥 갈수록 울충한소리연이로군 (다시惱殺할듯

이) 날 그렇게아지마우. 저거두당신의노리개감될

資格은 업스니쳐.

元 — (어이업는듯가만참고있다) 자 그러지말구 참

으로 너두의노릇이나 하구려. 決코 다들생각안

돌러이니. 치음맛날해모양으로多情하지냄시다. 참

오래되지도안었지. 그러케까지 너마음을 — 아니

서로마음을 喜悅로쳐 차게한지가 不過數日前이야

비요?

貞 — (코웃음) 이때도 나는 여간독독한사람이 안

예요.는 데기詩人이 쓰는詩에 숨어넘어갈주려아오?

元 — (웃음) (비)고만두구려. 참 兇惡한女子로군. 世

상의 미운것도만치만 난의感情을 돌리는것처럼

미운것이 다시잇슬가.

貞 — 두대기詩人은예는 그러케하게 안보하는게로군.

요새사람들은 다들男자의 안해배앗기를 지내가

다가우르다리에피인숫가지 썩거가듯이 생각하는

모양것좀되다만 나는良心까지 파러먹지안어요.

元 — (證明的態度로) 黃海勳이 는 누가 죽게했소?

貞 — 당신도 그렇게생각하는구려 (嫌惡의情이듯이

는듯이) 그러기에 요새青年이란 멍렁구리지. 버

면허 을치안흔주르알고도와 自己되자리를 자기

가파요 글세.

元 — 을치안킨 무엇이 을치안어! 이배. 무파이야

貞 — (泰然하게) 내가 지금한말을 이것소. 나는 내良

心을犧牲해가면서도 感情에徹底하지안어요. 사람

위한 제각기 生活을支配하는이가 아니면안되

어요.

元 — 의 연연한아씨야 黃氏의遺書는 世上에다發表

된것이에요. 責任을안지것다고? 고녀위수장을 良

心잇는이가 할말이요?

貞 — 遺書가 다 무엇이야. 이두대기詩人아. 사람은

元 — 그때 그것만 오를 커녕 形勢가 해서는 處事로 생각하시요.

貞 — 그것도 그럴테지. 그렇지만 오를 커녕 形勢가 해서는 당신과 사이에 交際부러 이다 옴부러는 處事로 생각하슈. 男子가 한바 한말은 千金보다重하더요.

元 — 도 常識이 나온다! 그녀의 常識은 나와 四條이 면 줄로만 알구려.

貞 — (아주 엄시녀기듯의) 그러면 남誘인한게 아니요. 詩드워도조로 남이 리부르너도조치만 情잔치안케 의답의게 키스는 하라드느구.

元 — (도다리 녀들듯이) 키스는 常識이 아니라도 그리는 貞 — (防禦하며)操心하요. 이진詩가 아니야요 (本色으로) 나는 임대것 生活로 當身이쓰는 그두더기

詩보다도 더사라왔소. 임대것 내가 하구심은일은 무엇이드지해왔지만 나만의 生活에 干渉은 아니하겟소. 구나 當心것은 情날 좀다르이새모양으로 날녓다. 안킷다. 품혔다. 내렸따하늘이의게는 女간 르를이 아니야요. 내가 當心 生活의 幸福을 舍트릴

주르 아슈.

元 — 것처럼은 生活에서 버드니가 어떤 生活을 幸福이라 고하는것도 無理가 아니지. 平和니 此處한 家庭이

니하고 憶懷하는것도 無理가 아니겠지.

貞 — 設令그렇다구해들시다. 그러니까 잊혀지는말야요.

元 — 그러니까 我家庭에 對해서는 아무말마시라는말야요. 그리고 다만 나個人으로만아려주려는말의

의요. 貞 — 당신도 所謂現代青年모양으로 吞입났군 죽었

다가 다시한번 사라나오구려. 그배가서는 당신所

願대로 키스드해주고 잘드재워주구 배음호다면 발드터너주고 치음다면 옷드입혀줄터이니.

貞 — 이런 사람을 임시역역도 분수가잇지. 그러면 아시所願대로 내가죽지도못하고 다시사라나지도 못한다면 卽지금도알해보이는 現狀대로잇는다는뜻더케하면조탄말야요.

貞 — 나 眞상하터일들을 알아야한단말야요. 무슨말으로 내가 다르니의 靈魂속에서 養分을 싸러터



되면 詩도 못쓰게 되지안소!

元——아 그러면 날드리詩쓰라고 만나주는 거로군. 난

그럼 詩 안외도 조으니까. (그런데 물어키스할한다)

貞——(말을 바꾸치며) 예 그 말처럼과 詩를 다보겠네

元——예구 응찬한 아씨도 다보겠네.

貞——(말을 바리자) 안다가는 더 앙식한 말은외

말러니 操心해요.

元——(미쁘디시)너부 그러지마려요. 불쌍합니다. 성

한사람을 病身인드니는 煉獄에도 못가구 地獄으

로간대요.

貞——커거두 난 儀往을 버린실미요. 불쌍한사람을

눈압해다가두고 良心은 짓은 못해요

元——불쌍하긴 무얼 불쌍해. 걱정마려요. 불쌍한것

도 업고 무서운것도 업스니까.

貞——(아주 賤히녀이든듯이)조런沒人情한!

元——(비우스며)人情問題가 아니라 人生問題야. 더 살

기爲해서 더 힘있게 살기 위해서 良心도 重하겠지

人情도 重하겠지 허나 結局은 自己生活을 爲해

하는 일이 아니요!

貞——生活이다 人生이니 高概念上的 말은 난 覺

나오. 다들 覺을 覺을 모르니는 自己를 覺을 모

르는 법이요. 다른니를 살니게 할만하는 때와 自

覺도 覺을 수가 있는 게지. (眞情으로) 난 여기 오는

것도 罪를 覺을 일어나서 못견대겠는데. 다만 불

쌍하신夫人께서……

元——(우울한 얼굴로)번져지며)말하고만 우어요. 커

사람인가 사랑할 순허수아비지. 내말드려요 사랑할

수가 다 다스어가지만 罪人人形이 罪人수아비는

다시 업을고. 화를 버드 비 비 外담업신나우래도

비 비 兪를 버주어드 비 비 甚至於 罪人구할 못키

드 비 비 兪를 버야 어머나할 왜이래요!

라지. 이게 사랑의 覺을 못이요. 손뚱호도 건다리

가만해도 覺을 버리는 罪를 버 못보아주소. 차라리

발어지와 同居하는게 낫지.

貞——당신 생각에는 모두가 당신노리개같이 되면 滿足하

시겠지. 허지만 사랑의良心이란 노리개알이 안과

요. 뜻이 당신노리개알이 될려고 되는 주리 아요? 불

이 당신노리개알이 될려고 흐트는 줄 아요? 새가 당



에게) 여보슈 이 사람이들이 지금두삼인데 처찬  
난 아버지덕에 잘못자 큰고생이오. 손년도 조용  
히 견주셔야 합니다.

眞—그참마세요. 난 어린애 잘못자 거 하려고 아야네요  
母—아이를 조곤한 거 하주시라 말해요. 손님이 더

드신다는 게 아니라  
元—글쎄 풍드러가 소원하시오. 걱정만구 貞子氏  
이리 드려 오슈.

母—아이를 보세여 못키만 쳐보아라 모두 쫓겨날데  
닛가. (안방으로 드려간다.)

眞—걱정마십소. 조용히 여들지 안투록 할리니셨요  
元—아무런 그렇지요. 安眠妨害罪라니 逐出律이相當

하구말구. (貞子를引進해드리며 映窓門은 여린대  
房) 난 피 기머렸지요. 안오는 걸로만 알고 가십

元—아 요런 풍족한앗시구나. 별치 못하와서 영뎃  
나고 貞子房에서 詩人 노래가 나지.

眞—아 요런 풍족한앗시구나. 별치 못하와서 영뎃  
나고 貞子房에서 詩人 노래가 나지.

元—아 요런 풍족한앗시구나. 별치 못하와서 영뎃  
나고 貞子房에서 詩人 노래가 나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眞—普發하구려. 난 어린애 安眠妨害罪로 普發을 할데  
닛가.

보다 더 열부게 살고  
보다 힘있게 뒤엎  
남한분을 맞았거든

아하 두데기 병새에 무슨 걱정

안방에는 아 회우들 소리

거는방에는 詩人の 노래

오나 불을 아 풀어라

바람이 뭐야라.....

(후렴을 들었다 일거사, 거는방에서 어린아의 우우들 소리  
가난다.)

母——(거는방에서) 애야, 좀 조용해해라. 애 첫잠드려

는 것일름. (오른손에 들고는 詩人の 소리.)

元——(더 소리를 관한)

이나 詩人의 불어라

바람이 뭐야라.....

母—— 조용해 하라니까 안듣니더 개도참.

元——(如前)

보다 더 열부게

보다 힘있게 뒤엎

남한분을 맞았거든

母——(뒤머나와도 불을 끌고 드러다 보면 처) 커덕애 인일이

냥 밤도 안 먹고 인말기 온이 그리나니. 제발 애 죽

지게 하려무나. 남을 맞았스면 만났지 외 그렇게 소

리 치는 법이라 드니? 남도 남이지만 어린구 혼도 중생

각을 해야지. (드러가려다가 밧게 인칭기를 채리고)

에그 그게 구구요. (元永이가 忿히 映窓門을 열고

외다본다.) 난 암작을 벗겨든 누구차 좌왔소?

眞子——(나오며) 李元永氏께서요?

元——(映窓門을 열고 나오며) 아 오셨소?

자 드려오시요. 어머니는 드러가서요 고만. 조

용할레닛가.

母——무엇의 조용이야? 또 새들이 별편이지. (眞子

劇喜 「두데기詩人의幻滅」 一幕

산 김 수

李元永 (三三)

其母 (五四)

其妻 (二七)

朴貞子 (二八)

초여름밤。充永의집。左側은溫突。右便에大廳。

또그右便에溫突房。(안은안되어고문만)。大廳덧문

은다려려곳코, 左側溫突房은映窓門을닫혔다。電氣

불이발게키여있다。

元永——(우시시한머리가映窓에박치고冊床압해안켰다。

갑호리고詩를쓰다가고개를번들쳐고나서는朗讀을해

본다마로가기동업해는貞子가박겨쳐서엎듯고있다。)

아然 맛나서라 偶然히

를잡고 바람치는

海邊가에서너를맞았사라

오냐 물결아놀어라

바람아놀어라

보다어엿부게놀고

보다힘있게뒤박

넘한분을맞았거든

아하 世上은재미있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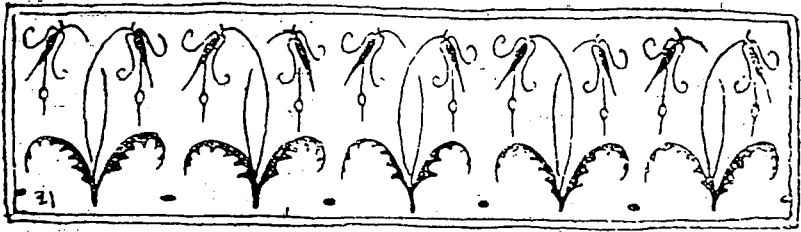
저음이웃가서 봄이오고

가슴이식기前에넘이왔사라

오냐 물결아놀어라

바람아뒤머라





# 學潮創刊號目次

|                    |       |   |   |   |      |
|--------------------|-------|---|---|---|------|
| 氣貫論                | ..... | 崔 | 致 | 培 | (二)  |
| 經濟價値의 一考察          | ..... | 金 | 哲 | 鍾 | (一七) |
| 女性解放運動의 史的 考察      | ..... | 鄭 | 哲 |   | (四)  |
| 生物學上으로 본 人類의 將來    | ..... | 宋 | 乙 | 秀 | (五)  |
| 東洋 天文學의 發達과 占術의 由來 | ..... | 文 | 源 | 柱 | (六三) |
| 隋唐 李後主의 詞          | ..... | 金 | 九 | 經 | (七〇) |
| 國家運動과 社會運動         | ..... | 成 | 錫 | 英 | (七七) |
| 勞働苦의 本質과 그 理想化     | ..... | 郭 | 鍾 | 烈 | (八二) |
| 카페어·프란츠            | ..... | 증 | 지 | 용 | (八九) |
| 살아진 마음의 흔적         | ..... | 케 |   | 찬 | (九三) |
| 短詩 六章              | ..... | 盧 |   | 鳳 | (九五) |
| 바람의 오이르케스트라        | ..... | 曹 | 沃 | 鉉 | (九七) |



うにお願いします」

客二「(손짓을하면서)「閣下のこんな大きな方で」

局長「えゝ 何んとかして見ませう」

客一「本當に同業者として見るに忍びずです。どうか一  
つ閣下のお力で 今一度だけ許して下さいれば 再び又  
と過激な事書くやうな事ないでしょ。私責任負ひます  
でしょ。」

局長「(머리를끄르면서)さうですねえ……」

客三「閣下が何んでもやらうと思ふと 何んでも出來ま  
すですからね」

局長「いやいや さうでもありませんよ」

客一「どうぞ お願いします」

客三「是非ともお願い致します」

客三「今度だけ許して下さい」(三人最敬禮할)

(四人事務室을나간다 暫時後自動車소리 書記 □

의를어온다)

客二「아아구 줄너라」

客三「아아(합창한다)

(客三의말을듣고)말안가新聞중다시보아야지 무엇때

문여押收람」

(모두新聞으로모인다)

書二「소리를내며題目을읽는다」……二八處女の飲毒自

殺의로구나…… 青年會館에서 新式인스音樂會로구

나…… 電軍故障三件이로구나…… 處無主義詩人某의

處女誘惑이로구나……

어디무슨押收될건던지가있다」

書一「社說이무엇인가중보게」

書二「社說? 그래(新聞을네오긴다)秋口の散步押收될

外談이무어야」

書一「무얼야요?」

書二「에라 그만두어라。배꼽잡니 국이식기권에밤머

으러가자」

書三「참 국식기권에밤머기으러가제」

(모두一齊히합창을한번씩하면서나아간다)書三 新聞

을국여방구석에버려던지고나아간다」

書三「가자」 밤머기으러가자 아이 줄렴(門을닫고出)

一九二五、十二、十三日夜 (幕)

正萬 「홍 패」 찬어 일로 말하면 피격할 말 쓰지 말라고  
사랑 발님이로군!」

淸一 「그러나 지금 그애야말로 참 허한애야. 인디 말로  
첫살막은 제할것은 妓生을 가꾸는 즉 자사자 하는 것  
세음인지!」

淸二 「그러게 말일세. 돈 없거나 잇는 것을 다 아쳐 부러버  
리느라구 매월로로 집에서 밤을 새이니. 그러고新聞은  
인케 쓰나!」

正萬 「무얼! 그사람들은 재조들이 잇스니까. 그리고도  
해나가지!」

淸一 「아암朝鮮에서 才換인단 사람은 다야!」 〇〇日報에 모였  
다 비!」

(선이 첫은 줄기 시작한다.)

淸二 「그러나 이려고. 커려고 간에. 요사하는 押收도너무  
만흔다. 재미가 업서. 新聞잡버기가 좀 약 가워요!」

正萬 「그래도 〇〇日報 가 잇서야 해요. 당배들 안 이 덕드래  
도 〇〇日報 는 보아야지 (별안간에 생각난 듯이) 이것보  
게해가 왜 인디 된장인가. 가게무!」 닷다 말고 워서 (蒼館

하나 가면서) 안녕히 들주무쇼!」

淸一 「네!」

淸二 「평안히 주무쇼!」

(正萬退場. 숙에서 소리 지른다. 「昌成아! 손님가신  
다. 신발 버는 아라!」)

(淸記一, 二, 선이 들을 채인다.)

淸一 「애昌成아. 손님들가신단다!」

淸二 「애들아. 중개!」

(선이 들이러나아간다.)

(客들(十餘人)모도醉하여 비틀거리면서 妓生들을 불러고  
廊下를 右便에서 左便으로 通해간다. 其中의 三人의 事務

室門에 呼여 한 사람을 室内으로 案内한다.)

客一 「閣下(아)도 特別な 話 ありますが!」

局長 「아, さうですか(들어온다.)」

客二 「(酒氣가 가득한 語調로) 今夜 愉快でした!」

局長 「全く 愉快でした네!」

客一 「は、今夕 局長 ありません。皆 フレンド 下です!」

客二 「さうです. 皆 フレンド 下 あります다!」

客一 「所が 閣下! (머리를 숙여 禮를 하면서) 先きにも 本

話 しました 通り. XX日報を. も 一度 發行 出來るや

합二「응 나 민선이 모도招待한거라네」

正萬「손님들은모도누구요?」

합一「손녀?」

합二「손님들말인가? 記者야記者」

正萬「응응 신문記者라! 엇던신문사야」

합一「○○日報하고 △△日報」

합二「뭐도알고심혀한다」

正萬「글씨 너는내말이라면창집행이틀들고나스니 무

승원수냐 (一同을보고)나는신문」가져대일부담드라.

총독부맡잡어시지... 돈생기지... 다들사람만큼, 工

夫똥한것이 一生의恨야 工夫해가지고신문」記者나되

면조-모조홀가!

합一「참말이지○○日報가잇기벼무」에우리가살어가네

디쳐누가巡查헌데마커죽거나말거나○○日報만업셔도

우리가알겠나. 나는○○日報것치고마운것이업데 (小

聲으로) 또그것뿐인가 그런일도○○日報벗게는나지

안들겠」

합二「○○日報小説도채미잇데」

正萬「秋紅傳말씀이지요?」

합二「응 新小説册秋紅傳보다는종잡싸스드라」

正萬「무얼요 잘들것도업지요. 그것보담은뽕곰날까말

까.....」

합一「장秋紅傳채미잇는데요. 커는요새 꼭마보는데요」

(洋服정의 妓生여개를외고廊下右便에와서正面壁을유리

窓으로손을다리밀면서)

洋「여-! 청냥하나주 (술이醉하야비를거란다)

합二(청냥을준다)

洋「으으 (트림을하고발을똥친다)

합一「거진다더며갑니까」

洋「인제곳과할걸 으-으. 그들의새쉬인잔말인지」

합一「그日本손님은누구세요?」

洋「日本손님? 응응. 그놈! 왜놈이지...」

합二「온 누가그거모르나요?」

합一「局長이란다. 이번에새로운 內務局長야」

합二「국장이무어예요?」

洋「허\* 醬국야. 국수醬국이란다... (술자말도)떡의

招待를하고와서잡수어달나는데 누가실래 으-으

(妓生을외고도로간다)

待一 「무엇때문에押收가되었나」

正萬 「글쎄요」

待二 「무엇때문에押收되었나. 키 커보세」

待一 「그래」

待一 「그렇게도押收드니. 도押收안? 비리먹을놈들아!」

待二 「조공만엇더케쓰면押收나. 조친놈은병어리되랴인  
가?」

待一 「아!자. 네안보놈이. 무얼안다고덕들어!」

待二 「왜이래. 설이노릇은필지연정. 속은다잇따다!」

待一 「속이등뭇게무엇이셔!」

待二 「왜드말땃홍사가」

(暫時間沈黙 押收記事를찾는다. 廊下를누가거려오는  
소리가들린다)

待三 「누구나누구야」

待一 「廊下땃갓으로고개를버민다」

正萬 「정말이냐? 그러면누가가커갓다」

待一 「누가연사람이. 가커간게지」

正萬 「(舊一을보고) 李主事오동은손남만무로」

待二 「언제든지. 그럴때. 무얼!」

正萬 「(舊三을보고) 昌成아. 너. 앓가新聞가갓지?」

待三 「新聞이라나」

正萬 「新聞이. 新聞이지무어야. 잔말말고어셔버노아라」

待三 「엇다가. 이녀위수착이냐? 누가신문을. 가커갓단  
말야」

正萬 「바들대러대며라. 그버너땃게업섯는대... 어셔  
버노아라」

待一 「어엇재」

正萬 「(머우재. 어림업는소리름말어)」

待二 「아셔」

正萬 「(아셔) 그러지말고갓다바쳐라」

待三 「허허. 사람을잇친놈을만기네그려」

待一 「안가커갓다는데. 무슨잔말야」

正萬 「너는무슨음견이냐」

待二 「야. 어마시다!」

正萬 「너는왜드어래」

待三 「그러지말고. 이리와당배나피우기」

(沈黙)

正萬 「정말이냐? 그러면누가가커갓다」

待一 「누가연사람이. 가커간게지」

正萬 「(舊一을보고) 李主事오동은손남만무로」

待二 「언제든지. 그럴때. 무얼!」

正萬 「(舊三을보고) 昌成아. 너. 앓가新聞가갓지?」

待三 「新聞이라나」

설三 「글썽 押收라는데 왜 고지를 안들어요」

합一 「벌떡이러나면서 무어 잊고있잖! 무슨新聞 이押收야」

합二 「잠이나자기와발워나」

합一 「押收면은 물론○○日報이지. 무엇을도쳐서押收

되었을차(고개를기우린다)

합二 「앗다 영인지장이다」

설一 「나 押收받지는엇더케아니?」

설三 「와! 그新聞중보보염? 영기잇스니……」

(주머니의식찰々聲은新聞紙를드린다. 모든손을바빈다)

설二 「왜——중보자」

합二 「중보자유나」

설三 「다시집어너오면서(왜)이러케모두 순하유? 가만 이틀잇스라니차」

합一 「관찰그新聞은어디서 으엇말이나?」

설一 「차남 또거짓말일체 죄섯들의 押收된新聞을어

디서 무슨才操도어디!」

설三 「무어야? 씨말기중뜻고말해」

합一 「그래! 이 야기는 나중에듯고 하여간중보자 유나. 어른의말승을들어야지」

설三 「가만히들게서유 이新聞은어디야기부러할려이니」

합一 「그래!」

(모든설三의말만쳐다보는다)

설三 「(이러서서)에헤! 무감의……(손짓을하면서)正

萬의가개로단배를사라갓지……」

합一 「진짜」

설三 「차넛먹고말일체 에헤!……그래 사가지고마약

나오라니차 配達夫가新聞을더러볼리갓다. 그러자마

자정넛거리고巡查한개기우차오드니 디합다 配達夫등

정머리를타잡고드(설一등을타친다)(고라 짜가 차

소 오마어……실분못데고이!) 하고派出所로알고가

드라. 그래서押收된출말엇유나……그리고는正萬의복

차넛하고잇는단의 술꼭집오듯코왔지 영예! 그레

도너가……」

합二 「장하다 장해 인케갓차보자」

설三 「新聞을册床우해떠노 으면서(자아 봄시다)(모

든말만듣고디퍼간다)

다 열어나와가

영二「그래 암쳐가기 다랏코왔흔것이 아조新式것호데!」

(별안간齊首소리가난다)

영二「큰소리로!」고라! 아야마사다!

(도령울한다)

영二「이누마 식그럼다 온초소! 이놈아야주總督府遊

轉手면 무셔온것이업디유!」

(밧것에서廻轉手소리「何がやがまし(い)野郎!」

영一「주먹을휘여내일면셔(더)이놈주먹맛죽분업!」의

함一」

란二「키놈이目前에永樂町에서 어린애치여죽을인놈의

지유!」

영一「말세말야!」그리고도종방울흔업으니 檢査府第

「이냐?」

영二「그것도흔지부지 쉬쉬해버릴나고하는것을○○○日

報에서막십엇지. 그래서慰勞金이라고三十圓을주었다

「듣가」

영一「기가막히지!」

영二「그것만보아도○○日報가왜勢力이잇세요!」

영一「그런도말고○○日報만업스면朝鮮을손은받일세!」

함二「출나가도업도고(애) 「히틀러」는잔말이나!」단숨

못차자우나!」

영一「단숨못치기는 初커네프부터조는양반이커먼소리라

「듣다」

함二「인적야 누가초커네프부터갓네프말이나?공업하그와

위소리로구나. 메기너셔! (다시눈을감는다)

함二「못은못코함一의안개환호를면셔(하)혀 여보게고

만줄게호자할은자터!」

함一「이거 왜이러나 아셔!함二의손을떠인다(」

함二「(영一을보고) 애吉成야 오물은○○日報가안오니

「이것이냐!」

영一「안왔치요?」그원리가업는데 너못보았니?」

영二「물나 야마 안오모양인데유!」

영三「(출다가렬안간에눈을뜨고)○○日報말이나유 후

○○日報을理업지 押收된新聞이와?」

영二「押收야?」

영一「정말이나?」

함二「정말押收되었나?」

# 料理人 집의 밤 (一幕)

柳 仁 卓

나오는人物

料理人 집書記 二人

선인 三人

妓生 五六人

容 十餘人

당배가개主人

배

가을 (김혼밤)

場 所

서울의던料理집事務所

正面壁 왼쪽에出入하는門。바른쪽에커다란류리窓。모다

닫혀있다。窓門밖으로廊下가보인다。왼쪽으로는밖갓출

入口로通하고。바른쪽으로는안으로通하는모양。正面을

向하여왼쪽의류리壁이있고그벽위의마당이나갈수하다。

正面류리窓에서時計가걸렸다。午前時半가량。室內에

는事務用册床 椅子四五개 金庫... 料理人 집事務所  
에상당한裝置... 書記一人 册床앞에걸린 커튼帳簿整

리를하고, 하나는안 커튼이다. 선인三人 하나는구석에  
서줄고하나는左便流리窓에몸을기댈고받말낸다. 본다

또하나는방한가온대어안 커튼 기지개를펴면서 합죽은  
한다。宴席의 노래소리 장고소리 우듬소리 (습가웃날

배외지間々히) 이릅니다

X X

선1「아이줄러 몇時냐 (時計키다본다) 거진새로세時

가다되었는데. 흥 경. 치게덕장출이다. 세월가는것도

모르는모양이로구나. 오흥 (합춤다시한번하면서이

리스며「무엇을그리내다보니(선2)안래로가서선2의개

여손을걸치고깃치받것을내다본다)

선3「칭찬하니선걸

선1「(마당에있는自動車를보고) 커自動車는왜조흔놈이

(前略)

(1931.7.4)

×

그의 遺作은 大部分이 그의 末期를 裝飾하는 戲曲인데 그 中에는 「佐藤先生과 李紅寅」과 같은 傑作인 小說도 적지 안타. 그러나 이에 一—히 다 그것을 揭載할 수가 업슴으로 그가 마즈막으로 病床에서 執筆한 戲曲 一篇을 紹介하여야 써 그의 一面을 보고저 한다.

## 넌센스 小曲 (一幕)

(人物)

醫師

看護婦

青年

紳士

此小問에 나오는 人物은 看護婦를 除外하고는 모다 그 動作 語套 對話의 速度 等に 잇서서 多分이 精神病的 傾向이 있다. 那 中에도 青年이 더욱 甚함.

至極히 「醫學的」의 設備를 갖고, 「理想的」으로 〇〇이 된 診察室……  
밤……

醫師 回轉椅子에서 呂宋煙을 피우고 안졌다. 암머리가 美麗하게도 홀  
턱 벗겨졌다. 물론 「모-닝」을 着用. 看護婦 무섭게도 아름다운 美人.  
看護婦의 맛당히 할 일을 하고 있다. 長교위에 한 紳士 팔다리를 벌  
리고 잠을 잔다. 新聞을 씻슴으로 얼굴은 보히지를 안음

醫師 看護婦! (醫師는 늘 自己 看護婦를 對하여 이렇케 불으는 버릇이 있다)  
오늘은 新聞을 가져올 일ियो.

看護婦 (피- 우습다는 表情. 新聞을 醫師 압해 갔다 늦는다)

醫師 (新聞을 퍼들고) 에에…… 오늘은 都大體 무삼 記事가 記載되어  
있단 말이고…… (고개를 끄덕끄덕) …… 도모지 中國이란 나  
는…… (한숨) 알 수 업는 나라이라…… (問) 總攻擊戰이 始作뒀  
다…… 어허어…… 蔣介石氏의 所屬 軍隊 約三萬은 前進命令  
을 밧고…… 나는 가서…… 黃海를 건너 北이라…… 짜는. 그  
러면 이제 張作霖이가…… 아암 그러치…… 올흔 일이……  
(고개를 끄덕끄덕) ……

看護婦 醫師! (看護婦도 늘 이렇케 불으는 버릇이 있다) 青天白日旗가 北京  
城 우에 밧날날 썰가 멀지 안엇겠지요?

醫師 質問인가? 看護婦. 그야 北京城과 青天白日旗와의 距離가 甚히  
멀다구도 할 수 잇고 甚히 갓가웁다구 할 수도 잇는 거야. 卽  
다시 말하면……

看護婦 距離라니요. 千萬에…… 時日 問題와 距離 問題…… 그를 넘  
어 넘우도 甚합니다. 醫師! 理解 不足이올시다. 그러헌 聰明헌  
要領로 엇더케나 獨逸나라 醫科大學을 마치엇는지 小學校부  
터 ヤリナホシ!

醫師 허허 조치 못헌 看護婦! 獅子가 여호 무서운 줄 몰은다구……

看護婦 올습니다. 獅子가 여호 무서운 줄 몰은답니다.

醫師 (일어나서) 듯기 실허! (椅子를 半回轉 식히고 다시 新聞으로 向한다)  
에…… 北方支那에 展開되는 今回의 南北戰爭은…… 에에……  
… 南軍은 나는 가서…… 그래설낭은…… 北伐事業의 完成은  
이것으로써 決定될 것이며…… 그래야 할 것이야…… (椅子에  
서 일어나 뒷짐을 지고 室內를 왔다갔다 하면서 演說調로 一層 소리를

놈해) …… 맛당히 그러케 되는 것이 當然한 理致이라…… 中國은 그 누구 말맛다나 잠자는 獅子였섯다. 오랫동안 列強의 …… 에에…… 帝國主義…… 에 또…… 資本主義…… 으으으 帝國主義 프러스 資本主義 에헴…… 무아 이런 어려운 말은 다아 빼버리고…… 要件대 그…… 그러하엿섯다. 빼-스(But) シカシ 그러혀나 말이엇다. 때가 當到하니 드되여 곱히 잠자 든 獅子는 눈을 부비고 니러나기 시작하얏단 말이올시다. 잇 쎄에 張作霖이 (고개를 흔들며) 아니 蔣介石이의 勇敢스러운 兵隊는 北쪽을 向하야 前進 또 前進…… 애라 고만 두어라 그것도 힘이 드는구나

看護婦 이것으로 第一編의 罫이올시다!

醫師 看護婦!

看護婦 醫師 무삼 말삼이시옵니잇가?

醫師 (演說調) 적어도 나도 파와 눈물이 잇는 사람이야.

看護婦 누가 아니래요.

醫師 正義와 人道를 爲하야서는 비록…… 이 내 머리가…… 에에…  
…

看護婦 무릅팍대가리라 허드래도……

醫師 (두팔을 버리고) 아…… 敎養 不足…… 헐 수 업다.

看護婦 繼續 繼續!

(1931.7.5)

醫師 비록 이 내가 무릅팍대가리라 허드래도 칼을 매고 銃을 들고 나갈 만한 自信이 잇다는 것야. 大砲알 그짜짓것 무엇이 겁나 리오…… 이 내 鐵板과 갓흔 이마뻬이…… 千軍萬馬 그짜짓 것…… 오! 이 내가 얼마나 勇敢스러운 것이냐! 英雄도 쎄를

맞아야 한다. 看護婦! 나는 재를 못 맛난 불상한 英雄이라고 할 수가 있스나…… 만일 나에게 재만 올 것 같으면…… 우후후! 가슴이 찢린다…… 피가 솔혀 올느는구나! 그 재엔 勿論 나는 醫師라는 職務上 赤十字 病院隊 속에서 活躍할 것은 定한 理致구 그러타! 赤十字의 旗入발이 날리는 곳은 아모런 強兵도 侵犯치 못할 것이나……

看護婦 赤十字가 英雄이올시다!

醫師 아암 그러치! 赤十字 萬歲! 赤十字 萬歲!

看護婦 小學校부터 ヤリナホシ다.

醫師 (혼자 怪常하게 興奮하면서) 赤十字 萬歲 醫師 萬歲! 醫師 萬歲!

(잠자든 紳士 부시시 쯔다. 醫師 짓치서 털썩 椅子에 주저안는다. 잠자든 紳士의 얼굴에서 新聞紙가 찢러지고 보니 그는 受難 잇는 액구 눈이다)

紳士 여보게 잠좀 자 보세 윈 騷動인가!

醫師 앗다 자네는 엇더한 心思로 자네 寢室에서 하는 바와 갓흔 行動을 나의 診察室에서 하라고 하나?

紳士 듯기 실소 잠좀 자세?

醫師 자네와 나는 오랫동안의 友情關係가 잇고 또한 자네가 相當한 財産이 잇고 海外 留學도 하고 敎養잇는 紳士라는 條件아…… 이 나와 同一하다는 理由가 자네로 하여금 나의 神聖한 診察室에서 잠을 자게 하는 것이 아닌가?

紳士 허허허 누가 헐 말인지? 나 亦是 자네라는 사람을 相當한 財産이 잇고 相當한 敎養이 잇는 사람으로 우리 智識階級の 分士로써 羞恥되지 안을 만한 사람으로 認定하는 싸닭에……

에에 여기가 비록 자네의 香氣롭지 못한 診察室이나마 나의 寢室과 갖흔 待遇를 하여 주는 것이 아닌가…… 그말야. 엇껏 든 여보게 잠잠 자 봅시다. 어젯밤도 料理집에서…… (間 그 애는 언제 봐도 귀여워…… (다시 新聞紙를 얼굴에 쓴다)

醫師 자네 조흔일! 내가 알 바 아닐세 (우악스럽게) 간호부! 고짜몽…… 쉰용하쑈구주방 걸고 十五錢 짜리에 고기 五錢어치만 너 허서 한 그릇만 速히 가져 오래.

看護婦 나의 尊敬하는 醫師! 요새 몇칠은 날마다 설녕탕. 그적게도 설녕탕 어적게도 설녕탕 오늘밤도 설녕탕.

醫師 (回轉椅子 우에 몸을 빗히고 呂宋煙에 불을 붓친다) 우리 갖치 돈 업는 사람 설녕탕이나 먹을 수맛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勞働…… 가장 神聖한 勞働을 하구 收入이라구는 至極히 僅少해…… 설녕탕이나 먹어야 돈을 벌지 안켓나 結局 人間の 進化라 함은 우리 갖흔 모든 돈 업는 사람이 모다 富者가 되야 한다는 것이다.

看護婦 가엽소. (電話를 건다. 醫師 말대로의 注文을 한다)

(門이 가만히 열리고 青年 患者 들어온다. 顔面 蒼白. 왼팔을 病的으로 썬다. 看護婦의 案内로 醫師 압 椅子에 안는다. 醫師 잠잠코 青年의 얼굴을 한참 드러다본다.)

醫師 職業은?

青年 無職

醫師 (입을 벌리면서) 아아.

青年 (흥내내며) 아이.

醫師 어디가 좀 압흐지?

青年 (고개를 숙덕어린다)

醫師 (青年의 썩는 팔을 붓잡는다)

青年 (소스라치며) 악! (눈이 점점 커지고 몸을 비튼다)

醫師 (青年의 팔을 논즉 青年 한숨을 크게 쉰다) 언제부터 팔이 썰녘나요?

青年 約 二年

醫師 그썩 무슨 일을 하고 잇섯나요?

青年 막 日本서 大學을 맞치고 나와서 혈일업시 놀고 잇슬 쎄…… (間)  
…… 하로는 親舊들과 늦게까지 술을 먹다가 집에 도라가는  
길에 몹시 배가 곱혔섯습니다. 나는 平時 설녕탕을 조와해서  
요…… 혼자 里門안 설녕탕 집에를 들어가지 안엇갓습닛가?  
들어가자 고만…… (間) …… 별안간에 정신이 앓득하야지고…  
… (間) …… 그 뒤는 엇더케 되였는지 알 수가 업섯서요.

醫師 설녕탕은 잡수섯소?

(1931.7.7)

中略

(青年 椅子에 주저안는다. 그썩에 설녕탕 配達人 들어온다)

醫師 (설녕탕 配達을 보고) 아 인제 가져와!

(配達人 설녕탕 썩박이를 테이블 우에 우악스럽게 내려놋코 도라간다.  
配達人 青年의 얼굴을 留心히 한참 되려다보고 退場)

青年 바로 저 사람야 한참만에 精神이 나서 눈을 쓰닛가 바로 지금  
나간 그이가 「여보세요 어서 잡수세요」

醫師 잠간 失禮허구 밥좀 먹겠소이다.

青年 내 억개를 냅다 흔들면서 「十五錢짜리에 고기 五錢어치를 더 너렸습니다. 국물이 식으니 어서 잡수슈」

醫師 (熱心히 설녕탕을 먹는다)

青年 (갑작이 벌떡 설녕탕 썩박이로 덤벼들어 되리 흔들다) 내 억개를 이리 케 흔들면서 (설녕탕 국물이 醫師의 뺨을 친다) 「어서 잡쉬요. 국물이 식습니다」 그러캣나요! (醫師 避한다)

青年 (天地를 震動할만한 우슴소리) 와핫하하하, 와하 … (狂人처럼 室内을 웃고 헤메이다가 노래 江南달이 밝아서 넘어 놀든 곳……)

看護婦 (짜재로 醫師의 얼굴을 씻서주고 그것을 青年 洋服 옷 주머니에 꼬자 준다)

青年 와- 하…… 風の中のはねのやうにいつも ○るおんな心

看護婦 (방정막게 웃는다) 오호호호호

醫師 (싱겁게 웃는다) 히히히…… 큰일 났다 診斷이다 至急 診斷이다. (青年을 房 한쪽 旣해 다가안치고 自己는 反對쪽 旣해 안는다) 看護婦! 看護婦 (看護婦 무던히 기다란 聽診器를 쓰네 온다. 醫師 귀에다 끼여 주고 帛지를 들고 青年에게로 간다. 고무줄이 室内을 橫斷한다. 看護婦 青年의 옷을 벳긴다)

醫師 왼쪽 옷가슴! (看護婦 聽診器를 青年 왼쪽 가슴에 대인다. 以下 命舍대로 同一하게 뒤통수! 모가지! 이마! 코잔등이! 오-라잇! (起立하여 宣言的으로) 虐疾이다. 저 青年은 不幸이 虐疾…… 이다.

看護婦 오호호호…… 호! (聽診器를 도로 갖다 둔다)

青年 내가 虐疾이라구?

醫師 虐疾!

青年 原因은?

醫師 兄丈 春夫丈께서 出生申告를 쓰시다가 死亡申告를 쓰게 되었다

는 事實이 그 한 原因이오 둘째론 兄丈 伯氏께서 에에 無職인  
까닭이야.

青年 아니 우리 兄님은 決코 無職이 아니오. 그는 斷然코 共產主義  
者이니라.

醫師 慈堂께서는?

青年 傳道夫人이오.

醫師 누님은?

青年 누님은 업고 두지의 누의동생이 잇스니 첫재년은 女學校 英語  
先生이오 둘째는 漢城券番에 屬하고 잇스니……

醫師 히히 히히히. 좃쿠 좃다. 藝名은?

青年 (못 드른 체하구 노래 울 밋해 핀 鳳仙花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

看護婦 醫師. 醫師께서는 이 青年을 虐疾이라구만 말씀하셨지요? 그  
리나…… 저는 斷言합니다. 이 青年은 神經衰弱 아니…… 에  
…… 胃가 납뽀니다.

青年 아니요!

看護婦 당신은 胃病이오! 胃病이오!

青年 (발을 굴는다) 아니오!

醫師 (점잔케) 青年 安靜하시오. 看護婦도 이 病院의 一分子인 만큼  
그만큼 發言權이 잇는 것이오 暫時 우리들은 別室에 들어가  
醫學上的 討論을 혀고 나올 必要가 잇습니다. 잠간만 기다리  
서요 (醫師와 看護婦 各各 書架에서 討論用 參考書를 빼 들고 傭房으로  
사러진다. 傭房에서 壁을 통하여 虐疾야…… 虐疾야 아니야 單純히 虐  
疾야 胃病야…… 等の 싸흠 소리 들녀 온다.)

(1931.7.8)

青年 (室內을 서성거리면서 노래) 病院에 핀 무릅팍대가리 네 모양이 처량허다…… (辯士調로) 그새에 짝-쿠-라 혀는 青年은 드디어 惡漢을 追擊하게 되었다 (語調를 變하여) 오- 埃及을 쫓겨난 저 이스라엘 民族은 兄弟들의 손목을 잡고 「모-세」를 찌러 「카나안」 福地를 向하여 出發을 혀게 되었습니다…… 짜- 짜 짜라 라찌라찌짜…… (書架로 와서 冊을 쏘아 본다) 파- 醫師 해 먹는 놈이 哲學은 다 무어야 무어? 「깨구리와 中學教師의 研究」라? (다시 왔다갔다 혀다가 잠자는 紳士를 비로소 發見하고 新聞紙를 제친다. 紳士 한쪽 눈을 쓰고 자니 아마도 자나깨나 액구일 듯. 青年 그 모양을 보고 拍掌大笑) 와- 핫하하하…… 이 량반은 자는 모양인가 온 (青年 찌는 팔을 紳士 눈 압흐로 가져간다. 紳士 한쪽 눈을 깜짝여리지도 안는다. 노래) 한쪽 눈은 왜 안 감수 그 모양이 괴상허다…… (紳士 노래 소리에 깨서 니러나 어리둥절하다가 青年의 눈과 마주친다. 둘이 한참 서로 노려본다. 青年의 우숨이 터지고 노래) 자나깨나 액구로다 그 모양이 망측허이……

紳士 누구야? (青年을 몹시 흘겨본다)

青年 (소리를 높혀 웃는다)

紳士 나를 누구인줄 알구……

青年 (한쪽 눈을 감는다)

紳士 (한숨을 크게 쉬고 威嚴있게) 내가 萬一 獨逸 사람이었…… 드면…

…

青年 이게 윈 소리아

紳士 적어도 中國사람이 되엿드라도…… 그쪽 青年과 갓흔 敎養업고 精神에 異常이 잇고 눈같이 잘못 백여……사람 아러볼 줄도 몰으는 者를…… (間) …… 不過 내 압 數三尺의 距離에 두고

보지는 안을 것이다.

青年 (한쪽 눈을 감은 채 紳士를 되려다보며) 처음 보는 紳士! 來日 天氣  
는 엇더허겟슴닛가?

紳士 (소리를 더 높혀) 무슨 말씀입닛가? 그쪽 青年은 더욱이 나를 侮  
辱허라고 혀는 것이니…… 이래 보여도 나는 獨逸 醫學博士  
요…… 米國 哲學博士요…… 中國 理學博士요……

青年 이래 보여도 나는…… 現在 日本 法學士로 잇서서…… 將來 獨  
逸 哲學博士요…… 朝鮮 哲學博士요…… 其他 여러군데 哲學  
博士가 될 可能性이 잇는 사람이니……

紳士 (態를 變하야 多情스럽게) 여보슈 젊은 양반! 당신이니…… 나나 무  
엇을 기운 잇게 쏘내고 야단요. 당신은 왼팔을 그와 갖치 썰  
고 나는 눈 한짝이 요 모양이구 이 病院 主人만 혀드라도 偉  
大현 무릅팍대가리요.

青年 (椅子上에 걸어안쓰니 훌쩍어리고 노래) 病院에 핀 세 가지 病身 가이  
업고 불상허이……

紳士 每日 아침이 되면 이곳에 와서 新聞紙를 쓰고 낮잠을 자다 밤  
이 되면 집에 돌아가 자구 아모것도 혀는 일이란 업지요. 이  
러현 生活을 西洋서 돌아온 後 五年 동안이나 해 내려 왔담니  
다. 행길로 散步를 혀자니 이곳 저곳에서 「獨逸 갓다운 쏘액  
구」라는 소리가 들니지요. 그들은 나를 特別한 人種 待接을  
혀니 勿論 액구이닛가 特別야 大特別이지만…… (間) …… 日  
前に 冷麵집에서 네 親舊 한 사람이 나 보고 혀는 소리가……  
「아! 金先生이 冷麵집이 원일이쇼!」 혀니 大體 무슨 소린지  
그것은 참는다구 혀지만 엇던 사람들은 「그 子息 아주 洋國놈  
式인데!」 험니다. 그것은 오히려 조화! 내 둘째 아들놈이 工夫  
혀다가 한번은 썬여와 무어라는구 혀니 「お父さん!」 「응?」 그

랫갯다 「我が大日本帝國の人口がどれ位でせうか?」 그러는군  
 그째 여보…… 별안간의 質問이라 「…… 글세 얼마나 될가」  
 그갯지. 놈 혀는 소리 좀 들어보 「父さんばかだね! 그까짓 것  
 도 몰나요오!……」 혀고 달아납디다.

青年 (분이나서 椅子에서 니러나 紳士로 점점 갯가히 온다) 못생긴 놈!

(1931.7.9)

紳士 (겹이 나서 쫓겨간다. 青年 서로 쫓가튼 間隔을 두고 쫓가튼 步調로) 아  
 서!

青年 돈 쓰구…… (一步前進 以下 한 마디마다 一步式 前進)

紳士 아서! (一步退却 以下 한 마디마다 一步式 退却)

青年 西洋까지 갯다와서……

青年 액구가 이놈…… (一步前進하면서 썰니는 왼팔을 놓히 든다)

紳士 네 팔…… 네 팔은!

青年 죽인다 이놈! (四五步 突擊)

紳士 아이구 어머니 아서요오— (退却)

青年 (어느 틈에 싹퍼런 短刀를 빼어 들엇다) 희희 액구놈 죽어 보자

紳士 왜 죽어

青年 죽어!

紳士 머어? 무엇 재문에 죽이느냐말야…… (가라안은 목소리로 길게) 사  
 람 살려요 오……

青年 이놈 액구놈이 왜 이즘부터 저녁까지 낮잠만 자니?

紳士 그래서 죽인단 말이나?

青年 理由는 아무래도 좃타. 네가 내 손에 안 죽고 네 멧에 늙어 죽  
 어 보이라. 너의 最後는 寂寞할 터이다. 내가 죽여 주마. 榮光  
 으로 알아라!

紳士 決코!

青年 榮光으로 알아!

紳士 왜 죽니 왜 죽어?

青年 네가 안 죽고 십허도 내가 죽이고 십흔걸! 이 싯퍼런 칼로 (紳士 頭上에 견은다) 네 성한 쪽 눈을 번개불이 나도록! 팍?..... 쫄너..... 너는 싯 소리가 다아 무어나..... 두 팔을 버리고 잡 바지는 놈을 냅다 달녀들어 발스뒤꿈치로 복장을 차 넘어트 리면서 칼을 쪽 빼면은..... 네 눈 알맹이가 칼 싯헤 싯쳐 나 올 것이다..... (엄청나게 큰 우슴) ..... 죽어보지? 응?

紳士 (長교의 뒤에서 벌벌 썰고 있다)

青年 하나 (紳士에게로 前進) 들!

紳士 (입을 버리고 침을 흘린다)

청년 셋! (突然히 突擊)

(紳士 避하야 逃亡을 하니 青年 그 뒤를 쫓는다. 椅子 틈으로 冊床 周圍로 썩썩썩... 器具가 넘어지고 깨지기 始作한다. 猛烈한 싸움. 室內는 瞬間에 어지러워진다. 그째에 藥房에 잇는 醫師와 看護婦 冊을 퍼든 채 쫓어나온다)

醫師 (영문을 몰오고 갈팡질팡하며) 웬일야! 도모지..... 이게 웬일야!

看護婦 아이구머니나아..... 칼! 칼을 빼서요!

醫師 알 수 업다!

看護婦 醫師! 칼을 빼슬 생각은 업시 엿재 이 모양유?

醫師 (머리를 쥐고) 아아..... 虐疾이다. 確實히 虐疾이다! 저게 虐疾 쟁이 지랄이 아니구 무어야! 자아..... 이 冊을 보아라. (冊을 펴 들고 朗讀한다) 虐疾 患者는 時時로 發狂의 發作이 잇스니...

看護婦 아—니…… 醫師! 殺人이 날 지경인데 虐疾이 무어구 發狂이 무에요!…… 아아참…… 사람 죽겠네

醫師 남은 確實히 虐疾야!

看護婦 자아 째가 왓세요! 英雄! 赤十字! 大砲알 그까짓 무성시 무서 우리요! 항차 조까짓 창칼씀야…… 째를 기다리든 英雄! 出戰이다 무릅팍대가리…… 正義를 爲하야 人道를 爲하야…… 아 이 내가 말하구두 구역이 나는구나. 사람 살녀요! (醫師의 등을 미리 青年과 紳士의 格鬪 地帶로 出動시키라 하나 醫師는 頑強하게 固執을 세운다)

醫師 내가 기다리는 째라는 것은 이까짓 것이 아니다. 적어도 喇叭을 불고 북을 치면서

看護婦 그러면 자아 (발을 굴으면서 입에다 주먹을 대고) 짜라짜라 썩짜라 썩짜썩짜짜짜짜아…… 어서! 赤十字隊. 赤十字의 旗사발이 날 나는 곳 저까짓 창칼이 엇지 侵犯할 수 잇스리오.

(青年과 紳士의 格鬪 漸漸 猛烈의 度を 加하면서 그 格鬪 地帶는 차차 醫師 슌 곳으로 移動한다)

(1931.7.10)

看護婦 (작고 궁둥이를 빼는 醫師 달미를 친다) 偉大현 무릅팍대가리! 왜 이리도 못 생겼노!

醫師 큰일났다!…… (벌벌 썰면서) 여보…… 여기는 診察室이오 決코 당신네들의 運動場은 아닌 것을…… 아이구 무시어어!…… 決코 運動場이…… (갈팡질팡허다가 고만 青年 紳士 醫師 서로 열키고 풀어지면서 大格鬪. 看護婦 테블 밋헤 숨는다. 突然히 목이 썩지는 소리와 함께 紳士 덜컥 쓰러진다. 青年 꾀 무든 칼을 낚히 들고 彫刻과 갖치 문득 슌다. 醫師 青年 뒤에서 엇지 할 줄을 몰은다. 自己 뒤의 醫師가

잇숨을 發見하고 획 도라스는 바람에 醫師 칼에 마저 업혀진다)

靑年 사람을 죽였다. 희희 희희희 팔 病身이 「무릅괘대가리」 「액구」  
를 죽였어? (무서운 우습) 죽였다! 놈들…… 신경계는…… 내 손  
에 넘어갔네! 좃타 愉快현 運動이다. 이러현 일이라도 업스면  
이 世上은 넘우도 심심해. 倦怠다…… (沈默) 그래…… 二十八  
年 동안 깃븐 일도 잇섯고…… 슬픈 일도 만헛고…… 여러 가  
지 씬도 꾸어 보았다. 재미잇는 일도 하여 불냐고 헛섰다. 野  
球도 해 보고…… 하하하하하…… 戀愛도 해 보고…… 밋친  
놈! (沈默) 나중에는 사람까지 죽여? 내가 생각해도 무서운 놈  
이다. 그러나…… 무얼…… 相關업다…… 愉快한 作亂야! 이  
런 作亂이라도 안허면 나의 왼팔은 永遠히 썰닐 것이다! 그런  
데 왜 이럿케도 귀가 떡떡헛가? 時計의 태엽이 다 풀려서 썩  
각썩각헛든 소리가…… 썩 끈허진 고 瞬間 모양으로…… 무  
섭게도 고요허다. 누가 나를 불으는 것도 잤다. 그럴 리가 있  
나 그럿타…… 이 칼이 이 칼이…… (칼을 눈 압헤 갖가히 보며  
왼쪽팔을 더 甚히 썰면서) 너도 나와 作亂을 줌 허구 십혀? 좃치!  
올흔 말야 二十八年 동안 第一 愉快헛고 가슴이 시원현 作亂  
을 허게 해 준 이 칼헛고 나는 또 한번 作亂을 해 봐? 最後의  
遊戲! 最後의 運動! 와하하하하하…… (날을 쳐다보고 웃다가 압흐  
로 몸을 구부리면서 칼을 안고 업혀진다. 그 바람에 놀내서 看護婦 테블  
밋해서 썩어나온다)

看護婦 아아…… 무섭다. 세 사람이나 죽었다. 이게 당초에 정말일가?  
썩이면 좃켓는데 (칼을 집어 들어 본다) 아이그머니! 피! 피! (칼  
을 썩러뜨리고 눈을 가린다) 아이 무서 오호호호…… (진저리를 치  
고 넘어지랴다가 겨우 精神을 가다듬고) 단 멧 分 동안에 이게 정  
말일람? 이 사람들은 대체 무엇때문에 죽었누? (도라보며) 무엇  
이 이 사람을 죽였누? 죽어서는 안될 것인데 이 사람들의 病

은 넘우도 甚했나 보다 왜 그것케 病患들이 甚했서! (뒷거름질로 가만히 가만히 門으로 向혀면서) 액구눈이…… 팔 病身…… 무릅팍대가리…… 모두 귀여운 양반들인데…… 哲學博士…… 醫學博士…… 文學博士…… 理學博士…… 여러분 아마도 天堂 가는 길은 新作路일 것이올시다? 조흔 自動車 타시고 「쌌스」 타면 虐疾 생깁니다. 부디부디 天堂길 操心혀십시오. 「아-멘」